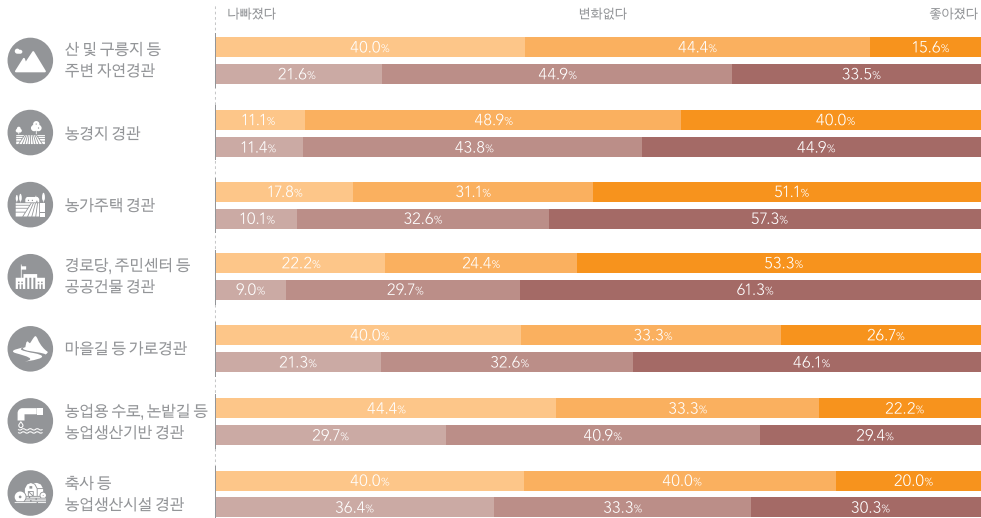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농촌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 555명(도시지역 거주자 494명, 농촌지역 거주자 61명)과 전문가 45명 모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 국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으며, 전문가는 농촌경관업무 담당 공무원·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6년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하였다.

Q 「경관법」 제정 후 10년 동안 농촌경관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 일반 국민 (orange) 전문가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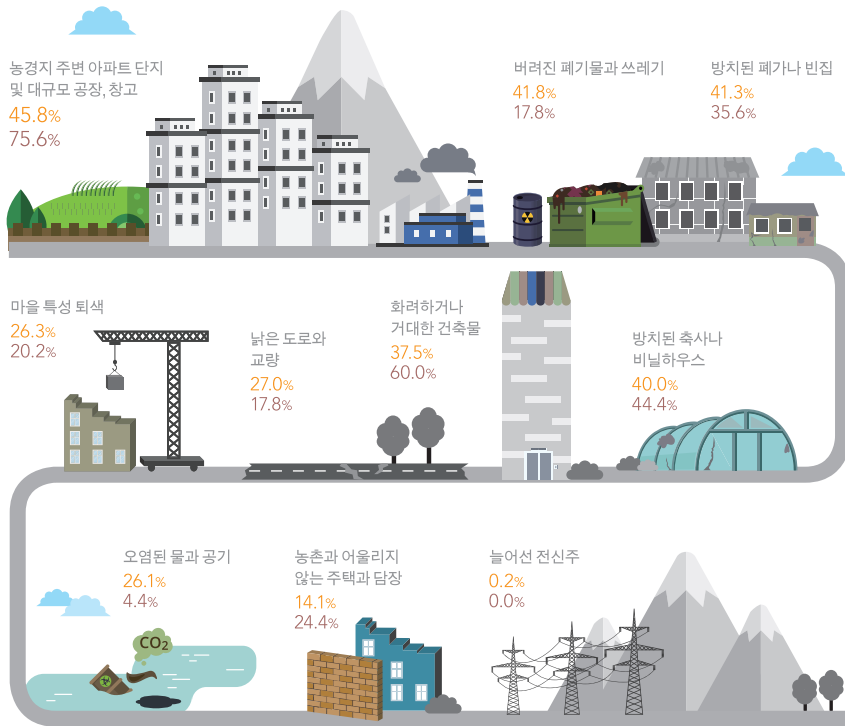


A 공공건물과 농가주택 경관은 좋아졌으나, 가로경관과 농업생산기반 경관은 오히려 나빠짐

「경관법」 제정 전인 10년 전과 비교해 '경로당·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경관'과 '농가주택 경관'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50% 이상이 크게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농경지 경관'과 '마을길 등 가로경관' 등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마을길 등 가로경관(40.0%)'과 '농업용 수로, 논밭길 등 농업생산기반 경관(44.4%)'이, 전문가들은 '축사 등 농업생산시설 경관(36.4%)'과 '농업용 수로, 논밭길 등 농업생산기반 경관(29.7%)'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Q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
1+2+3순위 종합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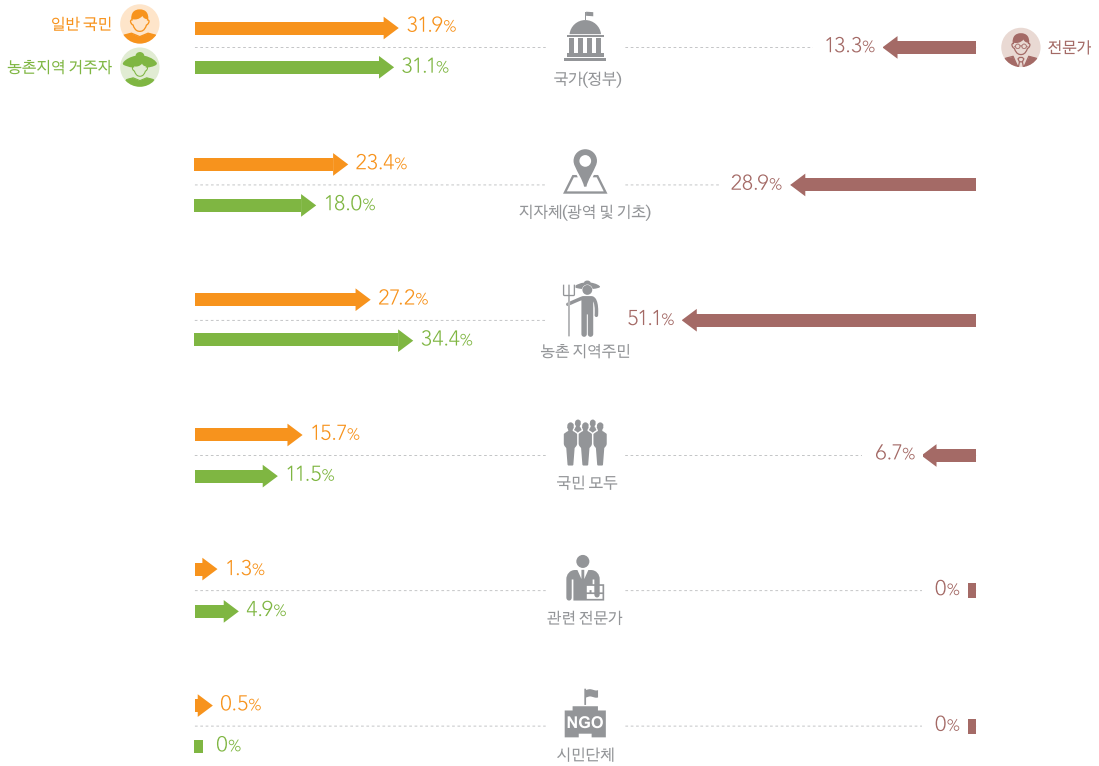


A 농촌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건축물과 개발을 요인으로 지적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농경지 주변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공장·창고', '펜션·음식점 등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거나 거대한 건축물'처럼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을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 '방치된 축사나 비닐하우스', '폐가나 빈집', '폐기물과 쓰레기' 등 농촌경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방치 문제를 농촌경관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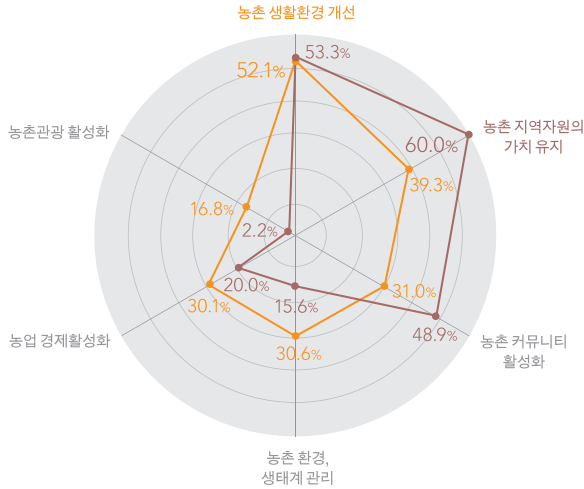
Q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일반 국민
전문가
농촌지역 거주자
1순위 응답 기준



A 지자체와 농촌 지역주민이 중요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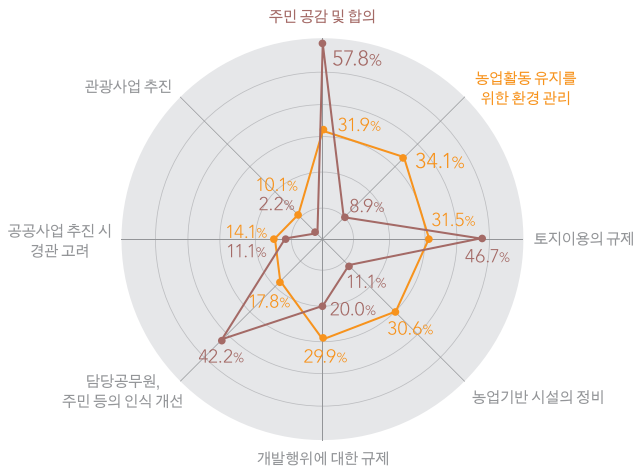
일반 국민들은 1순위 응답에서 '정부'(31.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중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순위로 '농촌 지역주민'(34.4%)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아, 스스로를 농촌경관 보전·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 농촌 지역주민 - 국가' 순으로,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주민 - 지자체 - 국가' 순으로 선택하였다.



Q 농촌경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A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가 중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반 국민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은?

A 주민 공감과 합의,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환경 관리가 필요

일반 국민들은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환경 관리', '주민 공감 및 합의', '토지이용의 규제' 등을 농촌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민의 공감 및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이용의 규제'와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